

대학 코칭 교양교육 개발을 위한 방향 탐색 및 요구 분석 - 여대생을 중심으로*

윤희정**, 김경아***, 이민신****, 임여진*****, 김지은*****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 코칭 교육의 개발과 운영을 위하여 대학 코칭 교육의 방향과 요구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 대상의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서울 및 경기권 소재 4년제 대학 여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윤리적 측면 확보를 위하여 소속 대학 기관연구 윤리위원회 심의 승인을 받았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3.0과 AMOS 23.0을 사용하였다.

대학생 코칭 교육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대학 교양과목으로서 코칭교육의 가능성과 중요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여대생의 요구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가들은 대학의 코칭 교육에서 코칭 철학의 실천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코칭 교육의 방향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코칭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둘째, 대학 코칭 교육에 대한 여대생들의 교육 요구는 세부 요인 중 코칭리더십 역량에 대한 교육 요구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코칭 스킬, 코칭 기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문가 인터뷰 및 세부 요인별로 도출된 교육요구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 코칭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세부적인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대학 코칭 교양교육, 코칭 교육 방향, 코칭 교육 요구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에 의하여 수행되었음(NRF-2019S1A5C2A04083150)

** 제1저자,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학부 교수, 교양교육연구소 연구위원,
yunhj@sookmyung.ac.kr

*** 교신저자,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학부 교수, 교양교육연구소 운영위원,
kakim@sookmyung.ac.kr

**** 숙명여자대학교 특수대학원 초빙대우교수, edcmslee@hanmail.net

***** 해군 리더십센터 교수, mabelle0501@gmail.com

***** 숙명여자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책임연구위원, cogito@sookmyung.ac.kr

I. 서론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입과 더불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겪고 있는 현재, 그 어느 시기보다 이러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성장 엔진이 요구된다. 그리고 그 하나의 대안으로 코치와 코칭을 받는 고객¹⁾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키를 내재한 코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구글의 전 CEO 에릭 슈밋(Eric Emerson Schmidt)는 “기업이 성장하고 싶다면 코치를 고용하라”고 언급할 정도로 이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코칭(coaching)의 어원은 1500년대 헝가리의 Kocs 지역의 마차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이후 1880년대 케임브리지의 캠강에서 대학생의 노젓기를 지도하는 사람들을 코치라 부르면서 시작되었다(Collins, 2001). 코치는 훈련(training)의 어원인 기차(train)와 비교하여 볼 수 있는데 train은 정해진 선로를 따라 이동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코칭은 본인이 있는 곳에서 출발하여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즉, 목표 상태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보다 개인화된 서비스라 할 수 있다(한국코치협회, 2021). 현대적 코칭의 접근은 1980년대 초반 미국의 재무컨설턴트인 토마스 레너드(Thomas J. Leonard)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코치 유니버시티라는 회사를 설립했으며, 이후 동료인 로라 휘트워스가 코치 훈련원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코칭 산업이 발전하였다. 1995년 국제코칭연맹(ICF: International Coaching Federation) 설립, 2003년 국제코치협회(IAC: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aching) 창설 등을 바탕으로 코칭의 전문화와 체계화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코칭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활성화되고 100여국이 넘는 국가에서 전문코치로의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다(한국코치협회, 2021a).

이처럼 코칭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관점의 정의가 내려지고 있다. 우선 국제코치연맹(ICF)은 ‘고객의 개인적·전문적 가능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영감을 불어넣고 사고를 자극하는 창의적인 프로세스 안에서 고객과 파트너 관계를 맺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국제코치연맹 한국지부, 2019). 또한, 세계 최대 글로벌 코치양성전문기관인 CCU(Corporate Coach University)는 ‘코치와 발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개인이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발전 프로세스를 통해 목표설정, 전략적인 행동 및 매우 뛰어난 결과의 성취를 가능하게 해주는 강력하면서도 협력적인 관계’로(한

1) 고객이란 코칭 관계에서 대화를 이행하는 주체로서의 개념으로 코치이(coachee), 피코치, 고객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코치협회의 사용 용어를 준용하여 ‘고객’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국상담코칭진흥원, 2021), 한국코치협회에서는 ‘개인과 조직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최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코칭의 의미를 제시하였다(한국코치협회, 2021a). 이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함의는, 코칭은 인간을 바라보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곧 인간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며,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능동적인 존재로 보는 코칭 철학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에노모토 히데타케(榎本英剛)는 모든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며,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해답은 모두 그 사람 내부에 있다. 또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세 가지 코칭의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榎本英剛, 2004). 존 휘트모어(John Whitmore) 또한 일찍이 21세기 리더들은 지시하고 책임지는 명령자가 아니며, 구성원을 성장시키는 코치가 되어야 하고 구성원들이 잠재력을 발휘하게끔 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아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리더십 차원에서의 코칭을 강조하였다(Whitmore, 2009). 이러한 이유로 국제코치연맹(ICF)은 코칭 철학을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인간관에 따라 ‘모든 사람은 온전하고(holistic), 해답을 내부에 가지고 있고(resourceful), 창의적인(creative) 존재로 본다’고 설명하고 있다(박창규 외, 2019).

즉, 코칭은 현재 상태에서 자신이 원하는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타인이 아닌 오롯이 스스로의 깊이 있는 성찰을 토대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코칭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미개발된 잠재능력을 발견하여 능동적으로 변화를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코칭은 리더십을 발현시키는 구체적인 행동이며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적 책임을 갖고 최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평적 파트너십이라고 함축하고자 한다.

대학의 교양기초교육이란 “대학교육 전반에 요구되는 기본적 지식 및 학구능력의 함양을 포함하여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세계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교육으로, 학업분야의 다양한 전문성을 넘어서서 모든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보편적 교육”이라 할 수 있다(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21). 특히 세계화된 정보사회, 지적 수요의 변화, 지적 지형의 변화, 그리고 공동체 의식과 규범의식의 회복에 대한 요구 등이 교양교육에 대한 현대적 상황으로 제시되는 만큼, 대학에서의 코칭 교육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정립’이라는 교양교육의 기본 목표에 부합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대학에서 대학생의 역량 개발을 위한 방법으로 코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칭은 각 개인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코칭을 통해서 키워지는 역량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수립하며, 성과를 만들어내는 유연한 인재로서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다(양미경, 2020). 이러한 배경 하에 교과과 비교과의 영역에서 코칭 및 코칭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접목되고 있다(리상섭, 2017;

조성진, 2016).

본 연구는 대학 인성교양교육을 위한 한 방법으로서의 코칭 교과목의 개발과 정교화를 위한 방향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의 리더십특성화 대학인 S대학교는 ‘자기성찰에 바탕을 둔 윤리의식과 전인적 공감 능력, 비판적 사고에 기초한 의사소통 능력, 자신의 미래를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 창의적 융복합 능력, 균형 잡힌 지적 소양과 심미적 이해 능력, 사회공동체와 함께하는 나눔의 실천 능력’을 구체적인 교양교육의 지향점(숙명여자대학교, 2021)으로 설정하여 교양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 아래에서 코칭 교과목을 성공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학교의 특성상 교과목이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므로, 학생들의 요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내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코칭교육이 대학 교양교육의 한 교과목으로서의 목적을 구체화하고, 더 나아가 대학 내 코칭의 정착 및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대학생 코칭 연구 동향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코칭 연구는 다양한 코칭 프로그램이 고객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효과성 측면에서 주로 진행되었다. 즉 자기 효능감·자기 이해와 같은 심리적 측면, 진로탐색 행동과 같은 행동적 측면, 의사소통 능력이나 리더십과 같은 사회적 역량 측면, 그리고 대학생활 적응이나 문제 해결력 향상과 같은 개인적 역량 측면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첫째, 대학생 대상 코칭이 대학생의 심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심리적 측면은 주로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스스로에 대한 깊은 이해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변수는 자기효능감이다. 많은 연구에서 코칭 프로그램은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성진, 2017; 서영숙과 정추영, 2016; 조지연과 탁진국, 2016). 비슷한 맥락에서 코칭은 자기 이해와 자기 성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칭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심리적 측면과 더불어 안정과 같은 심리적 평안이나 대인관계,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회적 관계 중요성 인식, 긍정적인 마음가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김희은과 이호준, 2016)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삶의 만족도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일수와 탁진국, 2019). 둘째, 코칭의 효과에는 행동의 향상이 있다. 즉 진로에 관련된 행동력을 살펴보았을 때, 진

로탐색 실행력·취업준비를 위한 실행력·진로 준비 행동과 진로 성숙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다(조성진, 2013). 더불어 궁극적으로 행동력 그 자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관리 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코칭이 심리적 측면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코칭은 대학생의 사회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 관계 능력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김희은과 이호준, 2016) 더 나아가 리더십 역량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심미영 외, 2019). 이는 코칭이 스스로에 대한 심리적 성찰과 개인의 행동에서 또 한 차례 나아가 사회적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코칭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개인적인 역량을 향상시킨다. 즉 대학생활 적응과 같은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역(탁진국 외, 2017), 효과적인 학습 능력을 의미하는 학습 몰입(조성진, 2018)·자기 주도 학습 능력(박순희 외, 2017), 진로와 관련된 사고능력인 역기능적 진로사고·진로성숙도·진로의사결정(임정섭 외, 2013) 등 모두 긍정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의적 문제해결력 향상, 사고력 향상에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유정은, 2014) 코칭이 대학생들의 개인 역량 함양에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산출한 코칭의 유효성이 증명된 만큼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 실시되고 있다. 이를 각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 분류해보면 학습 코칭 프로그램, 진로 지도 프로그램, 대학생활 적응 프로그램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학습 코칭은 대학생들의 주요 과업인 ‘학습 능력 향상’에 목표를 두고 설계되었다. 학사경고자를 위한 코칭 프로그램(남상은과 유기웅, 2017)은 대학 학습과정에 대한 대학생들의 평가를 분석하여 앞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발전되어야 할 부분과 시행되어야 할 세부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학생 대상의 학업 코칭 프로그램(임이랑, 2020)은 도입과 마무리를 포함한 정서(동기), 인지, 행동이라는 다섯 가지 영역을 설정한 후, 총 9가지 세부 주제(자기 개방 및 참여동기 촉진, 자기 이해 및 타인 이해, 동기조절을 위한 목표관리, 나의 학습전략 점검, 집중과 학습, 기억과 학습, 시간관리, 시험관리, 종합)와 이를 위한 활동 내용까지 세밀하게 수립하였다. 개발된 학습 코칭 프로그램은 그 효과성도 검증되었다. 또한 기존의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습 코칭 프로그램을 내용 분석하여 앞으로의 새로운 학습 코칭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현황과 기초자료도 제공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학습 코칭을 위해 학습관리전략과 목표형성 및 시간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코칭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황부순과 최혜란, 2014). 둘째, 진로 코칭은 진로결정과 관련 행동에 코칭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주목하여 설계되었다. 진로 코칭 프로그램(최창호 외, 2015)은 효율적으로 진로를 관리하기 위한 대학생 코칭 기법과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과 진로와 같은 목표가 아닌 실

제적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한 코칭 프로그램도 개발되었다.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개발된 대학생 또래코칭모델은(남상은과 유기웅, 2021), CAMPUS 코칭 모델로(Concept, Ability, Mindset, Process, Understanding, Self-evaluation), 6개 요소로 구성되며, 이는 코칭의 기술적인 측면 뿐 아니라 대학생들의 실제 대학생활 적응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진로설계 코칭프로그램(지성미, 2018)을 개발하여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로를 지도하는 방향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사회인지동기모형에 기반하여 개발한 성장지향성 증진 그룹 코칭 프로그램이 실시되어 그 효과성이 입증(경일수와 탁진국, 2019) 되는 등 다양한 학제 간 융합을 통한 대학생 코칭 프로그램의 개발과 검증이 관찰되었다. 위와 같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칭 프로그램들은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향상·삶의 만족감 향상 등의 심리적 측면과 진로탐색 실행력 등의 행동적 측면, 나아가 의사소통 능력 등의 사회적 역량 측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 유익이 검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대학 코칭 교육의 현황

개인 및 조직 성장을 위한 코칭의 효과성이 인정되면서 기업 뿐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의 도입과 적용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대학 내 코칭 문화 구축과 코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 과정에서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의 형태로 코칭 교육이 전개되고 있다.

먼저 학부보다는 전문적인 코치 배출과 연계된 대학원 과정에서의 접목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대학원 과정에 코칭 전공을 설치·운영하거나 코칭 교과목을 개설한 대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영대학원 내에서 코칭 전공을 개설한 대학으로는 국민대학교(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2021)와 단국대학교(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2021) 및 아주대학교(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2021)를 들 수 있다. 국민대학교는 ‘리더십진단과 코칭’·‘비즈니스코칭사례분석’·‘조직개발과리더십코칭’ 등을, 단국대학교는 ‘비즈니스 코칭론’·‘협상코칭론’ 등을, 아주대학교는 ‘핵심코칭역량’·‘비즈니스코칭’·‘코칭기본스킬’ 등의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각 MBA 학위와 상황에 따라 국내외 코치자격 취득을 병행하는 특징이 있다. 다음 교육대학원에서는 공통적으로 심리학을 코칭에 응용하여 코칭 전공을 개설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즉 광운대학교는 커리어 코칭과 비즈니스 코칭으로 나누어 ‘코칭심리학’·‘그룹코칭’·‘비즈니스코칭 사례연구’ 등을, 백석대학교는 ‘부모코칭’·‘의사결정코칭’·‘코칭심리이론 및 실습’ 등의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한편 아동의 언어코칭에 초점을 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문화스포츠대학원 과정(고려대학교 아동코칭학과, 2021)이 있으며, 기독교적 측면에서 접근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

대학원 내 상담코칭학 전공(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2021)에서도 ‘긍정심리학과 코칭’·‘코칭심리이론 및 실습’·‘코칭과상담’ 등의 이수과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끝으로 국내 최초로 대학원 과정에 코칭학과를 개설한 남서울대학교(남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는 기초과목과 심화과목으로 나누어 체계적인 교육편제 하에서 ‘리더십평가와 코칭’, ‘변혁적리더십코칭’, ‘조직문화와 코칭리더십’ 등의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학부과정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코칭 교육 또한 점차 폭 넓게 활성화되고 있다. 실제 한국코치협회에서는 대학생들의 개인적 성장과 향후 조직 내 핵심인재로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 내 코칭 교육 도입을 위해 대학 검증 프로그램 검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일련의 검증과정을 거쳐 인증 프로그램으로 인정되면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KAC(Korea Associate Coach) 자격 취득을 위한 인증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특전이 있다. 또한 대학에서 교양, 전공 영역에서 최소 2학점 또는 20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으로 코칭 실습시간이 총 교육시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갖춰야 하며 검증받은 학기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그동안 중부대학교의 ‘대학진로설계와 코칭리더십’, 한양여자대학교의 ‘라이프 코칭’, 고려사이버대학교의 ‘코칭의 이론과 실제’,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의 ‘코칭의 실제’ 등이 진행되었으나 현재는 만료된 상태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학 검증 프로그램은 숭실사이버대학교의 ‘코칭의 이론과 실제’, 협성대학교의 ‘SMART 코칭’, 제주대학교의 ‘라이프코칭 방법론’, 서울디지털대학교의 ‘커리어코칭 이해와 실제’, 고려사이버대학교의 ‘라이프 코칭’,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코칭’, 동신대학교의 ‘리더십코칭’ 등이 있다. 이 중 2학점으로 운영되는 동신대학교를 제외한 모든 대학의 코칭 교과목은 교과목명은 다르나 모두 3학점으로 진행되고 있다(한국코치협회, 2021b). 또한 이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코칭관련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남서울 대학교에서는 교양과목으로 ‘성격심리코칭’과 아동복지학과 전공과목으로 ‘성격과 코칭’, ‘리더십 코칭’(도미향, 정은미, 2012)이 있으며, 숙명여자대학교는 교양교과목으로 ‘에니어그램리더십과 성격코칭’, ‘코칭리더십’ 등이 운영되고 있다(숙명여자대학교, 2021). 이와 같이 대학 내 코칭 분야는 이제 양적인 확산과 더불어 보다 밀도 있는 학문의 콘텐츠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여대생의 코칭교육 요구분석을 위하여 먼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양적 연구를 위한 방향을 구축하였다.

1. 연구대상

먼저 양적연구설계를 위한 방향구축을 위해 대학과 기관에서 코칭교과목 및 코칭모델의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코칭 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전문가 2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여대생이 기대하는 코칭교육에 대한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양적연구를 진행하였다. 양적연구는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 총 5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먼저 대학 형태는 남녀공학의 경우 375명(74.8%), 여대의 경우 126명(25.2%)으로 나타났으며, 전공은 인문사회계열 279명(55.8%), 자연과학계열 77명(15.4%) 예체능계열 65명(13.0%), 공학계열 54명(10.8%), 의학계열 17명(3.4%), 기타 8명(1.6%) 순으로 분포되었다. 대학 유형은 국공립 대학 34명(6.8%)에 비해, 사립 대학이 466명(93.2%)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은 1학년 34명(6.2%), 2학년 65명(13.0%), 3학년 105명(21.0%), 4학년 299명(59.8%)으로 나타났다.

<표 1> 대학생 집단의 일반적 특성

(N=500)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대학 형태	남녀공학	374	74.8	대학 유형	국공립	34	6.8
	여대	126	25.2		사립	466	93.2
전공	인문사회계열	279	55.8	학년	1학년	31	6.2
	자연과학계열	77	15.4		2학년	65	13.0
	예체능계열	65	13.0		3학년	105	21.0
	공학계열	54	10.8		4학년	299	59.8
	의학계열	17	3.4				
	기타	8	1.6				

2. 연구윤리 설계 및 시행

전문가 인터뷰는 연구의 윤리적 측면에서 인터뷰 실시 전에 비밀보장과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와 중단의 권리, 녹취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였다. 이후 본교 회의실에서 연구참여자로부터 동의서(consent form)에 서명을 받은 후 2020년 2월 4일 약 120분 동안 면대면으로 진행되었다.

다음 양적 접근을 위하여 2020년 7월 21일부터 8월 12일까지 연구에 대한 설명을 안내받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전문 리서치 기관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3. 조사 도구 및 자료 분석

각각 활용한 조사 도구 및 자료 분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질적 연구 방법인 심층 인터뷰를 위하여 질문의 형태는 관련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반구조화한 질문지 초안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인 질문으로는 ‘대학 코칭 교육의 목적과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코칭의 교육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코칭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등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양적 연구 방법을 위해 개발된 설문문항은, 앞서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코칭 교양 교과목 개발 사례에서 제시된 교육내용 요소(숙명여자대학교, 2020)와 전문 코칭교육 기관에서 운영되는 코칭 교육 프로그램 주제(박정영, 2020),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코칭선호 분야 질문(정빛나, 2019)을 반영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문항은 7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 요구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본 연구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964의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ver 23.0(IBM Corp. Armonk, NY, USA)과 AMOS ver. 23.0(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다. 먼저 자료 검토를 통해 결측치 및 이상치를 점검한 후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변수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이후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 구조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 여대생들의 코칭 교육 요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대학 교양 코칭 교과목 개발 및 운영의 방향성 탐색

심층 인터뷰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목 개발 및 운영의 방향을 탐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범주를 도출할 수 있었다.

가. 코칭 교과목의 목표

본 교과목은 근본적으로 '변화와 성장', '전인적 인간에 대한 믿음'이라는 코칭 철학에 철저하게 기본을 둔 목표를 세워야 한다. 즉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강생들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지향적인 방향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교수자의 코칭역량이 요구된다.

- 코칭은 통합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왜? 온전하니까... 사람에 대한 믿음, 당신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나에 대한 믿음도 가져야 되는 거죠. 온전한 인간으로 바라보는 전인적이라고 하는 게 코칭의 테크닉에서는 완전히 묻어 있거든요.
- 학생들이 한 학기 이걸 듣는다면 그들의 삶에서 이 과목이 가장 기억에 남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그들의 몸에 뭔가 새겨지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고 정말 본인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how to'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구체적으로 develope 하는...
- 많은 학생들이 이 과목을 듣고 좀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함에 있어서 행복하고 자신감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 코칭 교과목의 설계 방안

정규 교과목으로서의 코칭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코칭을 '체험하는'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교육 내용에 있어서 자기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것이 곧 리더로서의 자질로 인식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구성하고 나아가 이와 연계한 코칭철학 기반의 코칭 스킬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더불어 교육방법적인 측면에서는 팀 또는 액티비티 중심의 활동을, 평가항목으로는 코칭 경험의 실제 사례를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제안하였다.

- 코칭 교육의 내용은 코칭이 포함되게 강의를 진행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일반적인 교육이 아닌 워크숍 같은 거예요. 그래서 팀도 짜고 하다못해 옆 사람하고 질문을 해서 쓰고 스스로 생각하게끔 하는 질문을 계속 주고 영상도 보고 하면서... 코칭방법론, 코칭 사례와 기법 등... 코칭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게 내용을... 코칭 수업은 다 이론은 조금만 해요... 학점이 나가려면 과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예 코칭 받는 거를 과제 하나로 하는 거죠.

- 이게 리더들한테 왜 중요한가? 리더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지만 그걸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앞단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코칭철학에서 인간중심의 코칭철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킬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스킬과 이제 이게 대화이다 보니까 대화의 스텝들을 그런 프로세스로... 코칭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리와 지식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사례 같은 거를 만들어 ‘이럴 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문제를 내요. 그러면 거기서 역량을 다 알 수가 있어요.

다. 대학 코칭 교과목의 확장 및 체계화 방안

본 교과목의 확장 및 체계화를 위하여 목적에 따라 1:1 코칭 또는 그룹코칭을 제안하였다. 즉 대학 내 비교과 프로그램의 형태로 개설하여 다양한 배경의 이슈를 지닌 학생들이 목적에 따라 1:1 또는 그룹코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코칭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참여 학생들의 삶과 진로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 1:1 코칭과 그룹 코칭의 베네핏이 조금 다르죠. 1:1 코칭은 그 사람한테 깊이 있는 대화를 하지만 사실 한계가 있어요. 코칭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런 관점만 가졌다면 사실은 우리가 같은 물건을 보고 있지만 똑같은 면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코칭을 하면서 줌인, 줌아웃을 하면서, 다양하게 보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는 건데, 1:1 코칭은 깊이는 있지만 다양한 관점을 갖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코치들의 역량일 수도 있지만 또 본인인 얼마나 이것 오픈하느냐도 이슈가 있고. 이제 그룹 코칭은 자연스럽게 그런 환경이 세팅이 되는 거죠. 여섯 사람이 모였으면 여섯 사람의 관점이 있는 거고 경험이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 그룹코칭은 다이나믹하게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거죠.
- 제가 생각한 게 ‘인간은 죽을 때까지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과 확신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런데 요새 아이들은 훨씬 더 이 불확실성에 흔들리고 있구나. 왜 그럴까?’ 라고 했더니 이 내면에 불안이 깔려 있더라고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학업이 조금 저조한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지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또 기업에서도 보면 로우 퍼포머들만 묶어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100% 실패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그룹 코칭이라고 세팅 자체가 주변에 같이 하는 사람들과 다이나믹하게 하는데. 그룹 코칭을 세팅할 적에는 사실 다양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 클리닉의 개념으로 하실 거면 1대1 코칭이 더 괜찮을 거고 만약에 그냥 모집을 하는데 학생들이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 것 같다고 하는 주제를

선정하셔서 하실 적에는 그룹 코칭으로 모집해서 하실 때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대학 교약 코칭 교과목의 교육 요구 분석

가. 코칭 교육 요구 척도의 탐색적 요인 분석

본 연구는 탐색적 요인 분석을 위해 주성분 추출법의 베리맥스(varimax) 회전을 실시하였다. 표본 및 변수의 수가 적당한지 검증하기 위해 KMO 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서 쓰인 탐색적 요인분석의 KMO 검정값은 .967(>.8)이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값은 = 9641.283, = .000(<.5) 로 나타나 적합성이 확인되었다.

<표 2>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표본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967	근사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9641.283	253	.000

코칭 교육 요구 척도의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이 낮은 7개의 문항을 제외하여 최종 3개 요인의 23개 문항이 추출되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요인 1은 ‘코칭을 통한 자기개발 능력 향상 관련내용’, ‘코칭을 통한 대인관계 개발 관련 내용’, ‘비즈니스 코칭의 실천 방법 관련 내용’ 같은 코칭을 통한 개인 및 관계 역량을 포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코칭리더십 역량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코칭철학의 이론과 수립배경에 대한 내용’, ‘코칭의 종류 및 분야에 대한 내용’, ‘코칭의 개념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코칭기반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피드백하기의 내용과 방법’, ‘인정하기의 내용과 방법’, ‘질문하기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 코칭스킬로 명명하였다. 세부 문항별 요인 부하량은 .551~.797의 분포를 보였다. 요인별 설명력은 코칭리더십 역량 요인의 11개 문항은 31.250%, 코칭 기반 요인의 7개 문항은 19.981%, 코칭 스킬 요인의 5개 문항은 19.117%로 총 설명량은 70.348%였다.

〈표 3〉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구분	문항	요인		
		1	2	3
코칭리더십 역량	코칭을 통한 자기개발 능력 향상	.786	.085	.350
	자아 탐구 및 실현, 자아정체성 확립	.776	.160	.301
	자존감 향상	.768	-.014	.228
	정신건강 증진	.766	.187	.292
	라이프 코칭	.759	.215	.268
	성격 개선	.751	.278	.166
	학업능력 향상	.719	.309	.196
	대인관계 개발	.713	.203	.369
	가족관계 코칭	.688	.512	.089
	비즈니스 코칭	.673	.458	.147
	진로 코칭	.660	.143	.471
코칭 기반	코칭철학의 이론과 수립배경	.154	.810	.244
	코칭의 역사	.086	.797	.248
	코칭의 종류 및 분야	.247	.728	.417
	코칭프로세스의 이해	.547	.597	.156
	코칭의 개념	.223	.588	.491
	코치의 자질	.243	.587	.508
	코칭 윤리	.252	.551	.510
코칭 스킬	피드백하기	.364	.353	.746
	인정하기	.362	.340	.723
	경청하기	.325	.398	.720
	질문하기	.317	.395	.681
	공감능력을 증진하기	.483	.224	.618
고유값		7.187	4.596	4.397
분산비율		31.250	19.981	19.117

총 설명력 = 70.348%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코칭 교육 요구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세부 요인별로 살펴보면 코칭 교육에 대한 요구 중 코칭리더십 역량은 .948, 코칭 기반은 .911, 코칭 스킬은 .925, 전체는 .96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4> 척도의 신뢰도

요인	구분	Cronbach' s α	항목 수
요인 1	코칭리더십 역량	.948	11
요인 2	코칭 기반	.911	7
요인 3	코칭 스킬	.925	5
전체		.964	23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코칭 교육 요구의 세부 요인들 간의 상호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분석 결과 코칭 교육 요구의 세 가지 하위 요인들 간에 모두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세부 요인들이 코칭 교육 요구라는 하나의 구인을 유기적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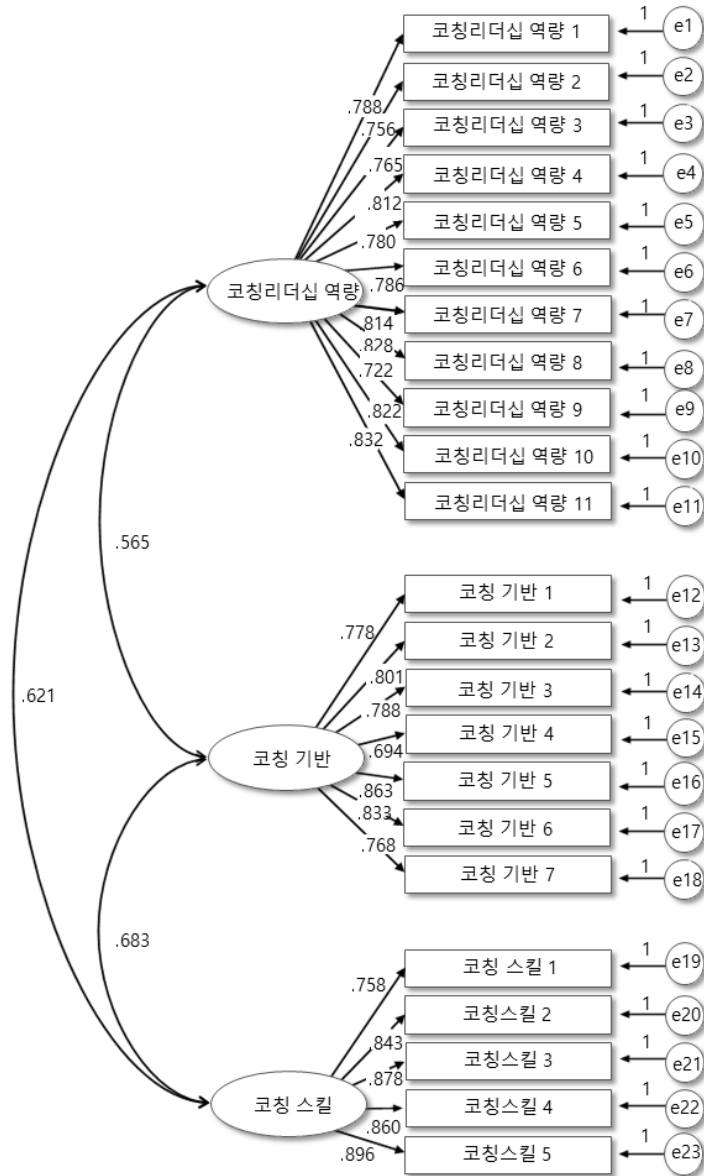
<표 5> 상관관계

구분	요인 1	요인 2	요인 3
	코칭리더십 역량	코칭 기반	코칭 스킬
요인1 코칭리더십 역량	1		
요인2 코칭 기반	.657***	1	
요인 3 코칭 스킬	.740***	.786***	1

*** $p < .001$

나. 코칭 교육 요구 척도의 확인적 요인 분석

본 연구는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코칭 교육 요구 척도의 요인 구조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1] 코칭 교육 요구 척도 확인적 요인 분석

코칭 교육 요구를 측정한 세 개의 요인, 총 23개 문항의 표준화회귀계수는 모두 .5 이상의 기준을 충족시키며 .694~.896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측정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 결과 다음 <표 6>과 같이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 측정모형의 적합도

구분	χ^2	df	p	TLI	CFI	RMSEA
측정모형	1011.595	227	.000	.908	.918	.083
참고기준			>.05	>.90	>.90	<.01

다. 코칭 교육 요구수준 분석

코칭 교육의 요구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7>와 같다.

코칭 교육의 세 가지 세부 요인 중 코칭리더십 역량에 대한 요구 수준이 평균 5.36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코칭 스킬(5.22), 코칭 기반(4.90) 순이었다.

세부 요인별로 살펴보면 코칭리더십 역량의 11가지 항목 중에서는 ‘자존감 향상’의 요구 수준이 5.6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코칭을 통한 자기개발 능력 향상’과 ‘자아탐구 및 실현, 자아정체성 확립’ 두 가지 항목(5.48점), ‘정신건강 증진’ (5.45점), ‘라이프 코칭’ (5.38점), ‘진로개발’ (5.34점), ‘성격 개선’ (5.30점), ‘대인관계 개발’ (5.29점), ‘학업능력 향상’ (5.25점), ‘가족관계 코칭’ 및 ‘비즈니스 코칭’ (5.17점)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코칭 기반의 7가지 항목 중에서는 ‘코칭 윤리’의 요구수준이 5.13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코칭의 자질’ (5.05점), ‘코칭 프로세스의 이해’ (5.03점), ‘코칭의 개념’ (4.91점), ‘코칭의 종류 및 분야’ (4.87점), ‘코칭철학의 이론과 수립배경’ (4.69점), ‘코칭의 역사’ (4.60점)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코칭 스킬의 5가지 항목에서는 ‘공감능력을 증진하기’의 요구수준이 5.3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피드백하기’와 ‘경청하기’ (5.21점), ‘인정하기’ (5.20점), ‘질문하기’ (5.12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코칭 교육 요구 수준

요인 구분	문항	M	SD	요인별	
				M	SD
코칭리더십 역량	코칭을 통한 자기개발 능력 향상	5.48	1.16	5.36	1.17
	자아 탐구 및 실현, 자아정체성 확립	5.48	1.16		
	자존감 향상	5.68	1.23		
	정신건강 증진	5.45	1.20		
	라이프 코칭	5.38	1.19		
	성격 개선	5.30	1.17		
	학업능력 향상	5.25	1.14		
	대인관계 개발	5.29	1.13		
	가족관계 코칭	5.17	1.16		
	비즈니스 코칭	5.17	1.16		
	진로 코칭	5.34	1.15		

요인 구분	문항	M	SD	요인별	
				M	SD
코칭 기반	코칭철학의 이론과 수립배경	4.69	1.15	4.90	1.16
	코칭의 역사	4.60	1.21		
	코칭의 종류 및 분야	4.87	1.16		
	코칭프로세스의 이해	5.03	1.17		
	코칭의 개념	4.91	1.05		
	코치의 자질	5.05	1.13		
	코칭 윤리	5.13	1.16		
코칭 스킬	피드백하기	5.21	1.13	5.22	1.13
	인정하기	5.20	1.11		
	경청하기	5.21	1.12		
	질문하기	5.12	1.12		
	공감능력을 증진하기	5.37	1.17		
전체				5.18	1.15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따른 결론 및 제언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코칭 분야 전문가와의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학 교양교과로서의 코칭 교육의 구성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코칭 교과목의 목표로서 변화와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인간존중의 코칭철학을 실천하고 이에 따르는 코칭 프로세스를 추구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코치가 코칭에 입문하면서 익히게 되는 코칭철학이란 코칭을 하기 전에 전제가 되는 사고방식(이소희 외, 2014)이자, 코치가 코칭 전체 과정을 바라보는 시각(조성진과 송계충, 2010)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에노모토 히데타케(榎本英剛)가 강조한 ‘모든 사람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해답은 그 사람 내부에 있다’,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라는 코칭의 세 가지 철학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이러한 코칭철학이 코칭교과목의 목표로 설정됨으로써 코칭 교육을 경험하는 학생들이 인간에 대한 존중과 전인적 인간에 대한 믿음을 체험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규정하는 대학의 교양기초교육의 개념을 바탕으

로 볼 때, 교양교육의 범주에는 사회적으로 요청되는 기본적 소양을 함양하는 교육이라는 개념이 포함될 수 있다. 대학교양교육으로서의 소양교육은 포괄적 의미에서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이자, 정서적·사회적 체험 및 실천적 교육의 수행을 의미한다(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21). 이러한 의미에서 대학의 코칭교과목은 소양교육으로서 인성과 리더십의 함양을 목적으로 두고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는 코칭과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과 및 비교과 영역에서의 코칭교육을 강조한 리상섭(2017), 양미경(2020), 조성진(2015) 등의 연구와 어느 정도 맥을 같이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코칭 자체를 체험할 수 있는 과정 자체가 교과목 설계의 기본 과정이 될 것이며, 적절한 학습방법과 평가가 설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대학 교양교과목으로서 코칭교육이 확장·체계화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트랙 기반의 설계 및 비교과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대학기본역량 진단 평가 등의 제도 시행에 따라 대학 교양교육과정의 체계화가 강조되는 이 시점에서 교과와 비교과 간의 유기적 연계 방안은 시의적절한 의견으로 판단된다. 특히, 교양교육과정 체제 편성 시 교양필수 교과목에 비교과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S대학의 교양교육과정 체제를 감안한다면 교과와 비교과 연계를 통한 학생생애주기에 따른 코칭의 저변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코치의 저변 확대를 위한 학생코치 양성을 통한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여 KAC 취득을 위한 지원을 제안하였다. 또한 대학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증을 추진할 것을 장기적인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한국코치협회는 2016년 이후로 대학 검증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학에서의 코칭 교육의 정착 및 코치 양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8개 대학에서 대학 검증 프로그램을 통한 코칭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한국코치협회, 2021b). 이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교과목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교양교육으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전문코치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심층인터뷰 및 기반 자료를 바탕으로 코칭 교육 요구 척도를 개발하여 조사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여 교육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교육 요구를 파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코칭 교육에 대한 3개 요인 총 23개 세부내용을 도출하였고, 3가지 세부 요인 중 코칭리더십 역량에 대한 요구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코칭 스킬, 코칭 기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대생들이 코칭 교육을 통해 무엇보다 자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내용에 대한 요구가 강한 것을 의미하며, 이를 반영한 교육 내용 설계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실제 교육 요구 조사 결과에 따라 제안할 수 있는 요인별 학습 주제는 다음 <표 8>와 같다.

〈표 8〉 대학 코칭 교과목의 내용 요소 제안

구분	학습주제
코칭리더십 역량	- 자존감 향상 - 코칭을 통한 자기개발 능력 향상 - 자아탐구 및 자아정체성 확립 - 정신건강 증진 - 라이프 코칭
코칭스킬	- 공감능력 증진하기 - 피드백하기 - 경청하기 - 인정하기 - 질문하기
코칭 기반	- 코칭윤리 - 코치의 자질 - 코칭 프로세스의 이해 - 코칭의 개념 - 코칭의 종류 및 분야

본 연구는 대학 코칭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이 개설 교과목이나 프로그램 단위의 효과성 분석 및 코칭 교과·비교과의 내용구성 소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에서 더 나아가 코칭 교육 전문가의 목소리와 실제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함께 반영하여 대학 코칭 교육 내용의 세부적 설계를 위한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대학 교양교과목으로서 코칭 교육의 설계를 위한 방향과 학생들의 요구에 따른 학습주제 요소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대학 교양 교과목으로서의 코칭 교과는 코칭철학을 체득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 도출한 세부 요인별 구성항목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삶의 전반에서 코칭철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과 뿐 아니라 비교과로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코칭 교과목의 목표 및 평가 방법, 그리고 학습계획 설계를 수행하는 동시에 차시별 핵심내용을 구성하여 학습을 수행한 결과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코칭 교과목의 설계적 측면에서 정교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교과목 운영을 통해 학습자들의 수업관련 의견, 학습목표에 따른 성찰, 학습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대학 교양 교과로서의 코칭 교육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요구조사를 통해 도출된 코칭 교과목 내용 요인이 실제 적용 시에도 효과가 있을 것인지 검증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하여 코칭 교과목의 대학 교양교과목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실제로 적용·운영할 수 있는 상세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 교양교육으로서 코칭 교과목의 표준화 작업을 위한 시도이며 이를 위하여 전문가와 수요자의 의견을 수용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교육 요구 주제들이 코칭 교양교과목의 수업설계와 운영에 반영되어 대학 내 특히 여대생을 위한 코칭 교육의 질적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경일수, 탁진국 (2019). 대학생 성장지향성 증진 그룹코칭 프로그램이 성장지향성, 삶의 만족도, 지각된 스트레스, 긍정심리자본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사회인 지동기모형을 기반으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6(3), 231-263.
- 김희은, 이호준 (2016). 감성코칭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4(12), 625-632.
- 남상은, 유기웅 (2017). 대학생 학사경고자를 위한 코칭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실행연구. **교양교육연구**, 11(1), 281-311.
- 남상은, 유기웅 (2021).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대학생 또래코칭모델 개발: CAMPUS 코칭모델. **교육방법연구**, 33(1), 101-127.
- 도미향, 정은미 (2012). 대학에서의 코칭학 교육과정 구축을 위한 탐색적 연구, **코칭연구**, 5(2), 5-22.
- 도미향, 이정은 (2020). 국내·외 대학의 코칭 교육과정 분석, **코칭연구**, 13(2), 31-51.
- 리상섭 (2017). D 대학교 대학생 선후배간 코칭 프로그램 운영 사례 연구. **평생교육·HRD 연구**, 13(4), 65-84.
- 박순희, 이은경, 오명화 (2017). 학습코칭이 보건의료 관련 전공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발육발달학회지**, 25(3), 315-319.
- 박정영 (2000). **3Cs I 베이직 워크북**. CiT 코칭연구소(미간행 교육자료).
- 박창규, 권은경, 김종성, 박동진, 원경림 (2019). **코칭 핵심 역량**. 서울: 학지사.
- 서영숙, 정추영 (2016). 진로코칭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셀프 리더십 및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12), 138-145.
- 숙명여자대학교 (2020). **교선택심영역 교과목 신규개발 결과보고서**(미간행).
- 심미영, 고숙희, 탁진국 (2019). 대학생 리더십역량 향상을 위한 코칭 프로그램의 효과. **청소년학연구**, 26(8), 183-208.
- 양미경 (2020). 대학생 인성교육을 위한 코칭역량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코칭연구**, 13(2), 93-103.
- 유정은 (2014). **강점활용 그룹코칭프로그램이 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희, 길영화, 도미향, 김혜연 (2014). **코칭학개론**. 서울: 도서출판 신정.
- 임미랑 (2020). 대학생의 자기주도성 향상 학업 코칭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교양교육연구**, 14(2), 297-309.
- 임정섭, 최영임, 김교현 (2013). 코칭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의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진로성숙도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2),

429-454.

정빛나 (2019). **일반인과 코칭전문가의 코칭에 대한 인식과 코칭서비스 요구수준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성진 (2013). 코칭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진로 준비행동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학술연구발표회 발표논문집, **대전대학교**, 12. 20. 1-18.

조성진 (2015). 코칭이 대학생의 인식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근거이론적 접근. **인적자원개발연구**, 18(3), 1-24.

조성진 (2016). 코칭 교과목이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교양교육연구**, 10(3), 107-137.

조성진 (2017). 코칭이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코칭능력개발지**, 19(3), 51-60.

조성진 (2018). 코칭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현장실험연구. **교양교육연구**, 12(4), 161-176.

조성진, 송계충 (2010). 코칭 효과 연구를 위한 코칭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인적자원개발연구** 13(1), 27-74.

조지연, 탁진국 (2016). 긍정심리기반 강점 코칭 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1), 279-304.

지성미 (2018). **생애진로설계 코칭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적응성과 진로스트레스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창호, 김수진, 김은애 (2015). 대학생 효율적 진로관리를 위한 코칭 기법과 전략. 2015년도 (사)한국취업진로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자료집, **대한상공회의소**, 5. 22. 101-116.

탁진국, 조지연, 정현, 조진숙 (2017). 대학 신입생 주도성 향상을 위한 코칭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청소년학연구**, 24(8), 55-81.

황부순, 최혜란 (2014). 대학생 학습코칭 프로그램 내용 분석. **대학생활연구**, 17(2), 57-73.

Collins, G. & Sloan, J. (2001). *Christian Coaching: Helping Others Turn Potential into Reality*. CO: NavPress Publishing Group.

Whitmore, J. (2009). *Coaching for performance*. Boston, MA: Nicholas Brealey Publishing.

Wiggins, G. & McTighe, J. (2005). *Understanding by design(2nd ed)*. Alexandria, VA: Association for Supervision & Curriculum Development.

榎本英剛 (2004). **(부하의 능력을 열두 배 키워주는) 마법의 코칭** (황소연 번역). 서울: 새로운제안. (원저 1999년 출판)

- 고려대학교 (2021) 세종캠퍼스 문화스포츠대학원 아동코칭학과.
(https://sejong.korea.ac.kr/mbshome/mbs/csg/subview.do?id=csg_0206000000000).
2021. 06. 28 검색 인용.
- 광운대학교 (2021). 교육대학원.
(<https://gedu.kw.ac.kr/new2017/HTML/education/coaching.php>). 2021. 07. 12 검색
인용.
- 국제코칭연맹 한국지부 (2019). ICF 2019 회원 현황(<http://www.icfkorea.or.kr/>). 2021.
07. 05 검색 인용.
- 국민대학교 (2021). 경영대학원.
(<https://mba.kookmin.ac.kr/mba/leadership/leadership-intro.do>). 2021. 05. 21 검색
인용.
- 남서울대학교 (2021). 대학원 코칭학과. (<https://gr.nsu.ac.kr/kor/51/dept/0129>). 2021. 06.
15 검색 인용.
- 단국대학교 (2021).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협상코칭전공.
(<https://cms.dankook.ac.kr/web/giba/-80>). 2021. 07. 25 검색 인용.
- 백석대학교 (2021). 대학원. (<https://community.bu.ac.kr/graduateschool/3988/subview.do>).
2021. 07. 05. 검색 인용.
- 숙명여자대학교 (2021). 숙명포탈시스템.
(<http://www.sookmyung.ac.kr/sookmyungkr/index.do>). 2021. 08. 01 검색 인용.
- 숙명여자대학교 (2021). 기초교양대학.
(<https://www.sookmyung.ac.kr/sookmyungkr/1070/subview.do>). 2021. 09. 05 검색
인용.
- 아주대학교 (2021). 경영대학원 코칭전공.
(<http://mba.ajou.ac.kr/Mba/CoachingMBA>). 2021. 07. 16 검색 인용.
- 연세대학교 (2021). 연합신학대학원 내 상담코칭학 전공.
(<https://ysugst.yonsei.ac.kr/ysugst/intro/statutes08.do>). 2021. 07. 28 검색 인용.
-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21).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 모델.
(http://konige.kr/files/sub0208/Konige_Standard_Model.pdf) 2021. 01. 19 검색 인용.
- 한국상담코치진흥원 (2021). 코칭 A TO Z.
(<http://www.ksoaching.kr/coaching-research/coaching-a-to-z/definitions/>) 2021.
07.28 검색 인용.
- 한국코치협회 (2021a). 코칭가이드. (<http://www.kcoach.or.kr/02guide/guide01.html>).
2021. 07. 10 검색 인용.
- 한국코치협회 (2021b). 프로그램 인증 · 대학프로그램.
(<http://www.kcoach.or.kr/03certi/certi0204.html>). 2021. 08. 01 검색 인용.

저자명 : 윤희정(Huijeong Yun), 김경아(Kyounga Kim), 이민신(Minshin Lee),
임여진(Yeojin Lim), 김지은(Jieun Kim)
이메일 : kakim@sookmyung.ac.kr

◆접 수 : 2021. 08. 09

◆수 정 : 2021. 09. 05

◆게재확정 : 2021. 09. 24

ABSTRACT

Analysis of Directions and Needs for the Development of Coaching Courses in University Education - Focusing on Female University Students

Huijeong Yun(Sookmyung Women' s University)

Kyounga Kim(Sookmyung Women' s University)

Minshin Lee(Sookmyung Women' s University)

Yejin Lim(ROK Navy Leadership Center)

Jieun Kim(Sookmyung Women' 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direction and demand of coaching education for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coaching curriculum for university students.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and a survey of 500 female university student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do. In order to secure the ethical aspect of research, approval was obtained from the institutional research ethics committee of the affiliated university. SPSS 23.0 and AMOS 23.0 were used for data analysis in this study.

According to the demands of university student coaching education, the results of expert opinion and demand survey on the possibility and importance of coaching education as a liberal arts course in university are as follows. First, coaching education at universities emphasized by experts emphasizes the practice of coaching philosophy and the direction of coaching education based on it. In addition, various extracurricular program development were proposed to spread the coaching culture. Second, as for female university students' educational needs for university coaching education, among the detailed factors, the education demand for coaching leadership competency was found to be the highest, followed by coaching skills and coaching basis. Third, the proposed applying the detailed plan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college coaching education based on the educational needs information obtained by expert interviews and detailed factors.

[Keywords] Coaching Courses, Directions for Coaching Courses, Needs for Coaching Courses